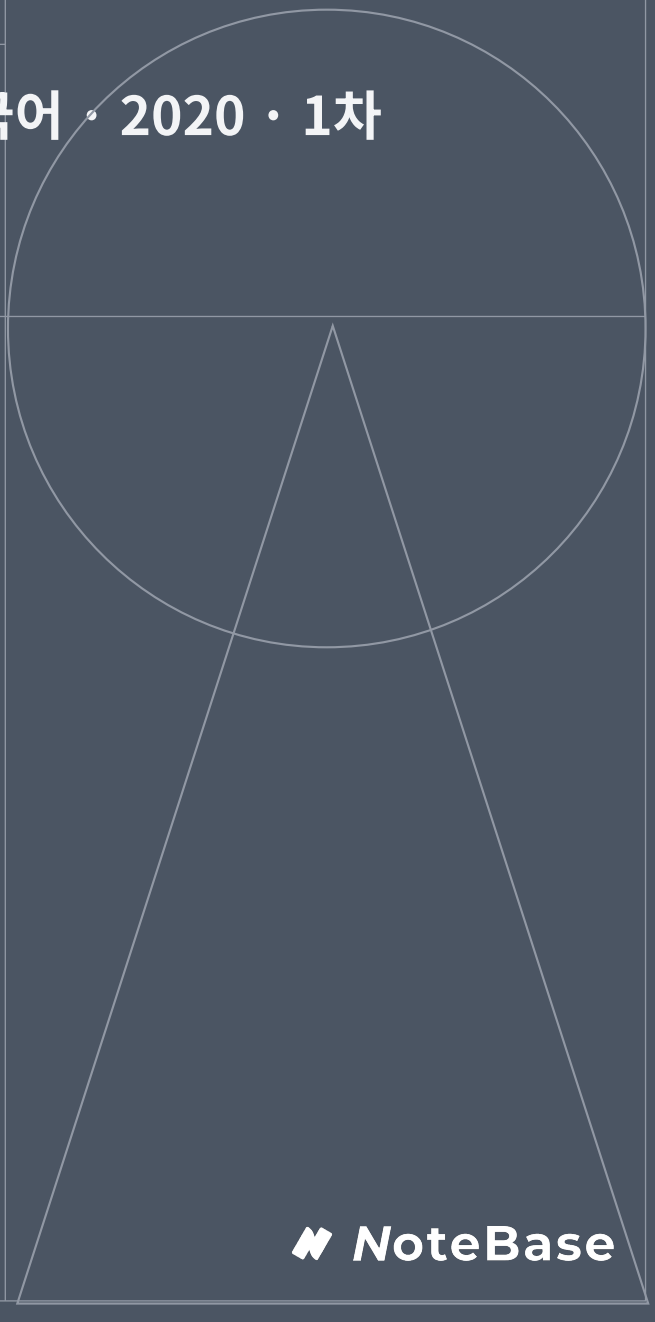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국어 · 2020 · 1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국어 · 2020 · 1차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국어 · 2020 · 1차

문 1. 다음 중 국어의 특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어의 마찰음은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의 3항 대립을 보인다.

② 국어의 단모음은 'ㅏ, ㅓ, ㅗ, ㅜ, ㅡ, ㅣ, ㅖ, ㅐ'로 모두 8개이다.

③ 국어는 조사와 어미로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교착어적 특성을 가진다.

④ 국어의 어두(語頭)에는 '끝'과 같이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국어의 자음·모음 체계와 교착어적 특성을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국어는 실질적 의미를 지닌 어근이나 어간에 조사와 어미 같은 문법 형태소가 차례로 결합하여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교착어이다. 현대 국어의 장애음 가운데 파열음과 파찰음은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의 3항 대립을 보이며, 표준적인 단모음 체계는 10개이다. 또한 현대 국어에서는 음절 첫머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연속하여 오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마찰음은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의 3항 대립을 보인다'이다. 마찰음에는 ㅅ·ㅆ·ㅎ이 있으나 동일한 조음 위치에서 세 계열이 짝을 이루는 3항 대립은 성립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파열음과 파찰음이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의 3항 대립을 보인다고 해야 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모두 8개'이다. 표준적인 단모음은 ㅏ, ㅐ, ㅓ, ㅔ, ㅗ, ㅚ, ㅜ, ㅟ, ㅡ, ㅣ의 10개이므로, 제시된 목록에는 ㅚ와 ㅟ가 빠져 있다. 올바르게는 국어의 단모음은 모두 10개라고 해야 한다.

③ O — 국어에서는 명사 뒤에 조사가 붙고 용언의 어간 뒤에 어미가 붙어 문장 속 관계와 시제·높임·종결 등의 문법적 기능을 나타낸다. 이는 문법 형태소가 어근이나 어간에 결합하는 교착어의 특성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있다'이다. '끝'의 첫소리 ㄲ은 두 자음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의 된소리 자음이다. 올바르게는 현대 국어의 어두에는 하나의 자음만 올 수 있다고 해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에서는 장애음 전체의 특징을 마찰음의 특징으로 잘못 옮긴 점, ②에서는 ㅚ와 ㅟ를 제외하여 단모음 수를 8개로 줄인 점, ④에서는 된소리 ㄲ을 자음 두 개의 연속으로 오해하게 한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어의 특질 문제에서는 자음의 '글자 모양'과 '음운 개수'를 구별하고, 단모음 목록의 누락 여부를 확인한 뒤, 조사·어미의 결합이 교착어의 핵심인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파열음·파찰음은 3항 대립, 단모음은 10개, 어두 자음군은 없으며, 조사·어미의 결합은 교착어의 특징이다.

NoteBase

문 2. <보기> 중 「표준발음법」에 가장 맞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기>
그믐달 [그믐딸] 늑막염 [능망념] 맑게 [말께]
서울역 [서울력] 숙맥 [쑥맥] 식용유 [시굥뉴]
젖먹이 [점머기] 직행열차 [지캥렬차]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표준 발음에 적용되는 된소리되기, 비음화, 겹받침 발음, ㄴ 첨가를 구별하고 잘못 표기된 발음의 개수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표준 발음은 표기된 자음만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음절 끝소리 규칙, 비음화, 된소리되기, ㄴ 첨가 등의 음운 변동을 적용한 발음이다.
보기의 올바른 발음은 그믐달[그믐딸], 늑막염[능망념], 맑게[말께], 서울역[서울력], 숙맥[숭맥], 식용유[시굥뉴], 젖먹이[전머기], 직행열차[지캥녈차]이다. 따라서 제시된 발음과 표준 발음이 다른 것은 숙맥[쑥맥], 젖먹이[점머기], 직행열차[지캥렬차]의 3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2개'이다. 잘못된 발음은 숙맥, 젖먹이, 직행열차의 3개이므로 올바르게는 '3개'이다.
② O — 잘못된 발음은 숙맥[쑥맥], 젖먹이[점머기], 직행열차[지캥렬차]의 3개이다. 각각 숙맥[숭맥], 젖먹이[전머기], 직행열차[지캥녈차]로 발음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4개'이다. 그믐달[그믐딸], 늑막염[능망념], 맑게[말께], 서울역[서울력], 식용유[시굥뉴]는 표준 발음에 맞으므로 잘못된 것은 3개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5개'이다. 보기의 여덟 발음 중 표준 발음과 다른 것은 세 항목뿐이므로 올바르게는 '3개'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숙맥을 된소리로 발음한다고 생각하거나, ㄴ 첨가가 일어난 직행열차를 [지캥렬차]로 읽으면 개수를 잘못 센다. 숙맥은 비음화되어 [숭맥], 직행열차는 ㄴ 첨가와 비음화가 적용되어 [지캥녈차]로 발음한다. 또한 젖먹이는 조음 위치까지 바꾸는 자음 동화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점머기]가 아니라 [전머기]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단어의 제시 발음을 하나씩 표준 발음으로 고친 뒤 서로 다른 항목에만 표시한다. 특히 받침 뒤의 비음화와 뒤 음절의 ㄴ 첨가를 순서대로 적용하고, 표준 발음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자음 동화는 배제한다.

암기 포인트

숙맥[숭맥], 젖먹이[전머기], 직행열차[지캥녈차]를 묶어 기억한다. 이 보기에서 틀린 발음은 세 개이다.

NoteBase

문 3. 다음 중 「한글맞춤법」에 가장 맞지 않는 것은?

① 일이 잘못되서 친구에게 따져 물었다.

② 뭣이 그렇게 널 마음 아프게 했느냐?

③ 생각건대 그는 숨길 마음은 없었던 것 같다.

④ 가슴이 너무 죄어 오는 느낌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용언의 활용과 준말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되어서’는 ‘돼서’로 줄여 쓴다. 또한 체언과 조사가 어울려 줄거나 ‘하다’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인정되는 준말 형태를 그대로 적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되서’가 틀린 표현이다. ‘되다’의 어간 ‘되-’에 어미 ‘-어서’가 결합하면 ‘되어서’가 되고, 이를 줄이면 ‘돼서’가 된다. 따라서 ‘일이 잘못돼서 친구에게 따져 물었다.’로 고쳐야 한다.

② O
‘뭣이’는 ‘무엇이’가 줄어든 말로, 체언 ‘무엇’과 조사 ‘이’가 어울려 줄어진 형태를 준 대로 적은 것이다.

③ O
‘생각건대’는 ‘생각하건대’에서 ‘하’가 완전히 줄어든 준말이므로 바른 표기이다.

④ O
‘죄어’는 동사 ‘죄다’의 어간 ‘죄-’에 어미 ‘-어’가 결합한 활용형이므로 바른 표기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되서’를 발음대로 적기 쉽지만, ‘돼서’는 본말 ‘되어서’로 풀린다는 점이 핵심이다. ③의 ‘생각건대’는 낯설어 보여도 규정상 인정되는 준말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되/돼’가 헷갈리면 해당 자리에 ‘되어’를 넣어 본다. ‘되어서’가 자연스러우면 준말은 ‘돼서’이다. 준말 문제에서는 먼저 본말을 복원하여 표기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되어서→돼서, 무엇이→뭣이, 생각하건대→생각건대이다.

NoteBase

문 4. 다음 중 우리말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길에서 친구에게) 오랜만이야. 선고(先考)께서는 잘 계시지?

② (카페에서 손님에게)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③ (평사원이 전무에게) 전무님, 과장님은 오전에 외근 나가셨습니다.

④ (병원에서 손님에게) 잠시 기다리세요. 주사 맞고 가실게요.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람을 높이는 표현, 압존법, 높임의 대상과 말하는 주체에 맞는 종결 표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주체 높임은 문장의 주체인 사람을 높이는 표현이며, 사물 자체에는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쓰지 않는다. 압존법은 높여야 할 사람도 그보다 더 높은 사람 앞에서는 낮추어 말하는 방식이지만, 직장에서는 윗사람에게 다른 윗사람을 말할 때 압존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ㄹ게요'는 말하는 사람 자신의 의지나 약속을 나타내므로 듣는 사람의 행동에는 쓸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X — '선고(先考)'는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이르는 말이므로 '잘 계시지?'와 함께 쓸 수 없다. 틀린 표현 '선고께서는'은 살아 계신 친구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아버님께서는' 등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나오셨습니다'는 커피라는 사물에 '-시-'를 붙여 높인 잘못된 사물 존칭이다.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 직장에서는 압존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평사원이 전무에게 과장을 '과장님'이라고 하고 '나가셨습니다'라고 높여 말할 수 있다.
④ X — '-ㄹ게요'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나 약속을 나타내므로 손님이 할 행동인 '가다'에 쓸 수 없다. '잠시 기다리세요. 주사를 맞고 가세요.' 또는 '주사를 맞으신 뒤 가시면 됩니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③에서 전무가 과장보다 직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과장을 낮춰야 한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직장 언어에서는 압존법을 일반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②의 '-시-'는 주문한 손님이 아니라 커피에 붙어 있으므로 사물 존칭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높임 표현에서는 먼저 높임을 받는 대상이 사람인지 확인하고, '-시-'가 실제 사람을 높이는지 살핀다. '-ㄹ게요'가 나오면 그 행동의 주체가 말하는 사람인지 확인하며, 직장 관계에는 압존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사물에는 '-시-'를 붙이지 않고, '-ㄹ게요'는 화자의 행동에 쓴다. 직장에서는 압존법을 일반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5. <보기>의 조건에 따라서 국어의 단모음을 나눈다면 가장 맞지 않는 것은?

<보기>
국어의 단모음은 '혀의 앞뒤(앞, 뒤)'와 '혀의 높낮이(높음, 중간, 낮음)', '입술의 둥긂(둥긂, 안 둥긂)'에 따라 나눈다.

① ㅣ : 앞, 높음, 안 둥긂
② ㅓ : 뒤, 중간, 둥긂
③ ㅜ : 뒤, 높음, 둥긂
④ ㅚ : 앞, 중간, 둥긂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국어의 단모음을 혀의 앞뒤, 혀의 높낮이, 입술의 둥긂이라는 세 기준으로 정확히 분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단모음은 발음하는 동안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거의 변하지 않는 모음이다. 혀의 앞뒤에 따라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 혀의 높낮이에 따라 고모음·중모음·저모음, 입술을 둥글게 하는지에 따라 원순 모음과 평순 모음으로 나눈다.

선지별 해설

① O — ㅣ는 혀의 앞부분을 높여 발음하고 입술을 둥글게 하지 않으므로 '앞, 높음, 안 둥긂'이 맞다.
② X — ㅓ는 혀의 뒤쪽을 중간 높이로 두되 입술을 둥글게 하지 않고 발음한다. 틀린 표현은 '둥긂'이며, 올바르게는 '뒤, 중간, 안 둥긂'이다.
③ O — ㅜ는 혀의 뒤쪽을 높여 입술을 둥글게 발음하므로 '뒤, 높음, 둥긂'이 맞다.
④ O — ㅚ는 국어의 단모음 체계에서 혀의 앞쪽을 중간 높이로 두고 입술을 둥글게 발음하는 모음이므로 '앞, 중간, 둥긂'이 맞다.

오답 포인트

②의 ㅓ와 ③의 ㅜ는 모두 후설 모음이지만 입술 모양이 다르다. ㅓ는 평순 모음이고 ㅜ는 원순 모음이라는 차이를 놓치면 ②를 맞는 분류로 오인하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모음을 한꺼번에 외우기보다 혀의 앞뒤, 혀의 높낮이, 입술의 둥긂 순서로 세 기준을 각각 대조한다. 특히 ㅓ·ㅜ처럼 혀의 앞뒤가 같은 모음은 입술을 실제로 둥글게 하는지를 따져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ㅓ는 '뒤·중간·안 둥긂', ㅜ는 '뒤·높음·둥긂'이다.

NoteBase

문 6.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은 품사인 것은?

<보기>
나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① 내가 만난 사람은 키가 컸다.
② 너무 매운 음식은 건강에 안 좋다.
③ 그는 신이 닳도록 열심히 뛰어다녔다.
④ 이 집은 맛있기로 유명한 순댓국을 판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활용한 용언은 겉모양이나 문장 속 기능이 달라져도 기본형을 밝혀 동사와 형용사 중 어느 품사인지 판단한다.

핵심 개념

'놀라운'의 기본형은 '놀랍다'이며, '놀랍다'는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놀라운'은 형용사 '놀랍다'가 '-은'의 형태로 활용하여 뒤의 명사 '일'을 꾸민 것이다. 품사는 기본형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문장에서 관형어 역할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관형사라고 보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 '만난'의 기본형은 '만나다'이며, '만나다'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만난'은 동사 '만나다'의 활용형이므로 '놀라운'과 같은 형용사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만난은 동사 만나다의 활용형이다'라고 해야 한다.
② X — '너무'는 뒤의 '매운'을 꾸미는 부사이다. 형용사 '놀랍다'의 활용형인 '놀라운'과 품사가 다르다. 올바르게는 '너무는 부사이다'라고 해야 한다.
③ X — '닳도록'의 기본형은 '닳다'이며, '닳다'는 신 등이 닳는 변화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올바르게는 '닳도록은 동사 닳다의 활용형이다'라고 해야 한다.
④ O — '맛있기로'의 기본형은 '맛있다'이며, '맛있다'는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따라서 형용사 '놀랍다'가 활용한 '놀라운'과 품사가 같다.

오답 포인트

①의 '만난'과 보기의 '놀라운'은 모두 뒤의 명사를 꾸미므로 문장 성분은 관형어이지만 품사는 서로 다르다. 활용형의 현재 모양이나 수식 기능만 보지 않고 각각 '만나다'와 '놀랍다'로 기본형을 복원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말이 활용한 형태이면 먼저 기본형으로 되돌린 뒤 의미를 확인한다. 동작이나 변화를 나타내면 동사,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면 형용사로 판단하고, '너무'처럼 활용하지 않으면서 용언 등을 꾸미는 말은 부사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만나다·닳다는 동사, 놀랍다·맛있다는 형용사, 너무는 부사이다.

NoteBase

문 7. <보기>는 국어의 시제에 대한 설명이다. 밑줄 친 부분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절대 시제란 발화시를 기준으로 한 시제이고, 상대 시제란 발화시가 아닌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한 시제이다.

① 공원에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
② 철수는 다음 달에 유학을 간다.
③ 넌 이제 큰일 났다.
④ 내일은 비가 오겠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 시제와, 주절의 사건시처럼 발화시가 아닌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 시제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절대 시제는 사건시를 발화시와 견주어 과거·현재·미래로 나타낸다. 상대 시제는 관형절이나 부사절 등의 사건시를 주절의 사건시와 견주어 나타낸다. '운동하는'의 '-는'은 운동하는 때가 주절의 '보였다'가 일어난 때와 같음을 나타내므로 상대적인 현재 시제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운동하는'은 관형절의 사건이 주절의 '보였다'와 동시에 일어남을 나타낸다. 발화시가 아니라 주절의 과거 사건시를 기준으로 한 상대 시제의 예이다.
② X — '간다'는 문장의 종결 서술어이며, '다음 달'의 사건을 발화시를 기준으로 나타낸다. '상대 시제의 예'라는 판단이 틀렸고, 올바르게는 절대 시제의 예이다.
③ X — '났다'는 문장의 종결 서술어이며, 일이 발화시보다 앞서 일어났음을 '-았-'으로 나타낸다. '상대 시제의 예'라는 판단이 틀렸고, 올바르게는 과거의 절대 시제의 예이다.
④ X — '오겠다'는 문장의 종결 서술어이며, 비가 오는 일을 발화시 이후의 일로 전망한다. '상대 시제의 예'라는 판단이 틀렸고, 올바르게는 미래의 절대 시제의 예이다.

오답 포인트

②의 '다음 달', ③의 '-았-', ④의 '-겠-'처럼 과거·미래를 드러내는 표현만 찾으면 시제의 기준점을 놓치기 쉽다. 핵심은 시간의 방향이 아니라 무엇을 기준 시점으로 삼는가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밑줄 친 서술어가 종결 서술어인지, 주절에 딸린 관형절·부사절의 서술어인지 확인한다. 발화시와 비교하면 절대 시제이고, 주절의 사건시와 비교하면 상대 시제이다.

암기 포인트

발화시 기준은 절대 시제, 주절의 사건시 기준은 상대 시제이다.

NoteBase

문 8.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평소에 운동하지 않으면 빨리 달리기가 어렵다.
㉡ 그는 민수와는 다르게 운동을 좋아한다.
㉢ 농구를 잘하는 영희는 키가 전봇대만큼 크다.

① ㉠은 안긴문장의 서술어가 한 자리 서술어이고, ㉡은 안긴문장의 서술어가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② ㉠은 명사의 역할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은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③ ㉡은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은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④ ㉠은 안긴문장에 부사어가 없지만, ㉢은 안긴문장에 부사어가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안긴문장이 문장 안에서 맡는 역할, 안긴문장 서술어의 자릿수, 안긴문장 내부의 문장 성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명사절은 문장에서 명사처럼 주어·목적어 등의 역할을 하고, 관형절은 체언을 꾸미며, 부사절은 용언이나 문장 전체를 꾸미고, 서술절은 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한다. 서술어의 자릿수는 그 서술어가 뜻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수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의 명사절 '빨리 달리기'에서 서술어 '달리다'는 주어 하나를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의 부사절 '민수와는 다르게'에서 '다르다'는 주어와 비교 대상인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② O — ㉠의 '빨리 달리기'는 주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의 '키가 전봇대만큼 크다'는 주제어 '영희는'에 대해 서술어 역할을 하는 서술절이다.
③ O — ㉡의 '민수와는 다르게'는 '좋아한다'를 꾸미는 부사절이다. ㉢의 '농구를 잘하는'은 '영희'를 꾸미는 관형절이다.
④ X — 틀린 부분은 '㉠은 안긴문장에 부사어가 없다'이다. ㉠의 명사절 '빨리 달리기'에는 '달리기'를 꾸미는 부사어 '빨리'가 있다. 올바르게는 '㉠과 ㉢ 모두 안긴문장에 부사어가 있다'이다. ㉢의 관형절에는 '잘'이 있고, 서술절에는 '전봇대만큼'이 있다.

오답 포인트

㉠ 문장 전체의 앞부분만 살피면 '평소에 운동하지 않으면'에 주의가 쏠려 명사절 '빨리 달리기' 안의 부사어 '빨리'를 놓치기 쉽다. 안긴문장의 종류를 판단한 뒤에는 그 안에 포함된 문장 성분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안긴문장의 경계를 표시하고, 문장 전체에서 맡는 역할로 명사절·관형절·부사절·서술절을 구분한다. 그다음 각 안긴문장 안에서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과 부사어를 따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 '빨리 달리기'는 명사절, ㉡ '민수와는 다르게'는 부사절, ㉢에는 관형절 '농구를 잘하는'과 서술절 '키가 전봇대만큼 크다'가 있다.

NoteBase

문 9. <보기>의 설명을 참고로 했을 때 가장 다른 하나는?

<보기>
담화(발화) 장면을 구성하는 화자, 청자, 시간, 장소, 사물 등의 요소를 가리키는 표현을 지시 표현이라고 하고, 담화나 글의 앞뒤에서 언급한 말이나 내용 대신에 사용되는 표현을 대용 표현이라고 한다.

① 사랑해. 사랑해.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는 대답이 없었다.

② 그를 기다린다. 나를 구원해주러 올 초인 말이다.

③ 그 글자가 어법에 맞지 않는 글자이다.

④ 읽고 또 읽어라. 그리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표현이 담화 장면의 대상을 직접 가리키는지, 앞뒤 문맥에 나온 말이나 내용을 대신하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지시 표현은 화자·청자·시간·장소·사물 등 담화 장면의 요소를 직접 가리키는 표현이다. 대용 표현은 담화나 글의 앞뒤에서 언급한 말이나 내용을 대신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문맥 속에서 대신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으면 대용 표현이고, 담화 장면의 대상을 가리키면 지시 표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정답 아님)
‘그렇게’는 앞에서 한 말인 ‘사랑해. 사랑해.’라는 내용을 대신하므로 대용 표현이다. 이 선지는 가장 다른 하나가 아니며, 올바르게 분류하면 대용 표현이다.

② X(정답 아님)
‘그를’의 ‘그’는 뒤에서 밝혀지는 ‘나를 구원해 주러 올 초인’을 미리 대신하므로 대용 표현이다. 대용 표현은 앞의 말뿐 아니라 뒤에서 언급될 말도 대신할 수 있다. 이 선지는 가장 다른 하나가 아니며, 올바르게 분류하면 대용 표현이다.

③ O(정답)
‘그 글자’의 ‘그’는 담화 장면에서 화자와 청자가 알고 있는 특정 글자를 가리키므로 지시 표현이다. 앞뒤 문맥의 말을 대신하는 나머지 선지와 성격이 다르다.

④ X(정답 아님)
‘그리하면’은 앞 문장의 ‘읽고 또 읽는’ 행위를 받아 ‘그렇게 하면’이라는 뜻으로 대신하므로 대용 표현이다. 이 선지는 가장 다른 하나가 아니며, 올바르게 분류하면 대용 표현이다.

오답 포인트

‘그’를 포함한 표현이라고 해서 모두 지시 표현인 것은 아니다. 특히 ②의 ‘그’는 뒤에 나오는 ‘초인’을 대신하는 대용 표현이고, ③의 ‘그’만 담화 장면의 특정 글자를 직접 가리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해당 표현이 대신하는 말이나 내용을 앞뒤 문맥에서 찾는다. 찾을 수 있으면 대용 표현으로 판단하고, 문맥의 말을 대신하지 않고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현장의 대상을 가리키면 지시 표현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문맥을 받으면 대용, 담화 장면을 가리키면 지시이다.

NoteBase

문 10. <보기>와 같은 의미 관계로 짝지어진 것은?

<보기>
㉠ 힘을 쓰다. ㉡ 모자를 쓰다.

① ┌ 친구와 같이 윷을 놀았다.
└ 철수가 놀고 있는 우리에게 방해를 놀았다.

② ┌ 친구들과 공을 차면서 놀았다.
└ 싱크대의 나사가 헐거워져서 논다.

③ ┌ 그 사람이 곗돈을 먹고 달아났다고 한다.
└ 그 일은 나이를 먹고 할 일이 아니다.

④ ┌ 귀가 먹어서 잘 들리지 않는다.
└ 마음을 먹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형태는 같지만 의미 사이에 관련성이 없는 동음이의어와, 한 단어의 중심 의미에서 여러 의미가 갈라져 나온 다의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동음이의어는 소리와 표기는 같지만 의미상 관련이 없는 서로 다른 단어이다. 다의어는 하나의 단어가 서로 관련된 여러 의미를 지닌 경우이다. <보기>의 '힘을 쓰다'는 '힘을 사용하다', '모자를 쓰다'는 '머리에 얹어 덮다'라는 뜻으로 의미 관련성이 없어 동음이의 관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윷을 놀았다’의 ‘놀다’는 놀이를 하다는 뜻이고, ‘방해를 놀았다’의 ‘놀다’는 방해되는 짓을 하다는 뜻이다. 두 뜻은 어떤 행동이나 짓을 한다는 공통 의미에서 이어지는 다의 관계이므로 <보기>와 같은 동음이의 관계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서로 관련된 뜻을 지닌 다의 관계라고 해야 한다.

② X
‘공을 차면서 놀았다’는 재미있는 활동을 하다는 뜻이고, ‘나사가 논다’는 고정되지 않아 이리저리 움직인다는 뜻이다. 자유롭게 활동하거나 움직인다는 의미 관련성이 있는 다의 관계이다. 올바르게는 동음이의 관계가 아니라 다의 관계라고 해야 한다.

③ X
‘곗돈을 먹고’는 돈을 자기 몫으로 차지하다는 뜻이고, ‘나이를 먹고’는 나이가 늘어나다라는 뜻이다. 둘 다 무엇인가를 받아 자기 것으로 더한다는 의미에서 확장된 다의 관계이다. 올바르게는 서로 다른 단어의 관계가 아니라 한 단어 안의 다의 관계라고 해야 한다.

④ O
‘귀가 먹어서’의 ‘먹다’는 청각이 둔해져 잘 듣지 못하다는 뜻이고, ‘마음을 먹어서’의 ‘먹다’는 어떤 일을 하기로 결심하다는 뜻이다. 두 의미 사이에 관련성이 없으므로 서로 다른 단어인 동음이의어의 관계이며 <보기>와 같다.

오답 포인트

같은 형태가 서로 다른 뜻으로 쓰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동음이의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와 ③처럼 뜻 사이의 연결 고리를 설명할 수 있으면 다의어이고, ④처럼 ‘청각이 둔하다’와 ‘결심하다’ 사이에 의미 관련성이 없으면 동음이의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말의 뜻을 각각 짧게 바꿔 쓴 뒤 두 뜻 사이에 공통된 중심 의미나 의미 확장의 연결 고리가 있는지 확인한다. 연결되면 다의어이고, 형태만 같을 뿐 뜻이 연결되지 않으면 동음이의어이다.

암기 포인트

뜻이 이어지면 다의어, 형태만 같고 뜻이 끊기면 동음이의어이다.

NoteBase

문 11. 다음은 A국의 여성 경제 활동 인구 및 참가율을 나타낸 표이다. 표를 보고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분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5세 이상 여성 인구(천 명)	19,899	20,086	20,273	20,496	20,741	20,976
여성 경제 활동 인구(천 명)	10,001	10,092	10,139	10,076	10,256	10,416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	50.3	50.2	50.0	49.2	49.4	49.7

① 15세 이상 여성 인구의 수가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다.

② 여성 경제 활동 인구의 수가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다.

③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은 2009년까지 감소했다가 그 이후로 증가하고 있다.

④ 여성들이 어떠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표의 연도별 수치를 비교하여 인구수와 참가율의 증감 추세를 정확히 읽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각 행의 항목과 단위를 확인한다. 인구수의 단위는 천 명이고 참가율의 단위는 %이다.
2.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인접한 연도의 수치를 차례로 비교한다.
3. 표에 제시되지 않은 활동 분야와 같은 정보는 추론하지 않는다.

핵심 근거

여성 경제 활동 인구는 2008년 10,139천 명에서 2009년 10,076천 명으로 감소한다. 따라서 여성 경제 활동 인구가 해마다 늘었다는 설명은 표와 맞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15세 이상 여성 인구는 2006년 19,899천 명에서 2007년 20,086천 명, 2008년 20,273천 명, 2009년 20,496천 명, 2010년 20,741천 명, 2011년 20,976천 명으로 해마다 증가한다.
② X — '여성 경제 활동 인구의 수가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다'는 표현이 틀리다. 2008년 10,139천 명에서 2009년 10,076천 명으로 감소했으므로, 올바르게는 '여성 경제 활동 인구는 대체로 늘었지만 2009년에는 전년보다 감소했다'이다.
③ O —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은 2006년 50.3%에서 2009년 49.2%까지 계속 낮아진 뒤 2010년 49.4%, 2011년 49.7%로 높아진다.
④ O — 표에는 여성 경제 활동 인구의 총수와 참가율만 제시되어 있고 활동 분야별 구분은 없으므로, 여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포인트

전체 기간의 처음과 끝만 비교하면 여성 경제 활동 인구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②의 '해마다'는 모든 인접 연도에서 증가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2008년과 2009년 사이의 감소를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해마다', '계속', '매년'과 같은 표현이 나오면 처음과 끝만 비교하지 않고 모든 인접 연도의 수치를 차례로 확인한다. 자료에 없는 세부 항목은 알 수 없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해마다 증가'는 단 한 번의 감소만 있어도 틀린 설명이다.

NoteBase

문 12.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가) 여러 통각이 뇌에서 동시에 수용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 뇌는 어떤 자극에 더 신경을 쓸지 결정을 내린다. 만약 두통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손가락이 베였다면 두통은 순간 잊힌다. 베인 통증이 두통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뇌는 더 심각한 통증을 극복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게 된다.
(나) 통증은 몸 어딘가에 이상이 있음을 알리는 신호이다. 이상이 있으면 신체의 해당 부위는 이 소식을 전달하고 뇌는 그 통증 발생지가 어디인지 분석하게 된다.
(다) 실생활에서는 이러한 '통증 인지'를 속이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예를 들어 간호사들이 주사를 놓기 전에 엉덩이를 찰싹 때리는 것도 그에 해당한다. 그러면 뇌는, 우선 찰싹 맞아서 생긴 통증에 신경을 쓴다.

① (가)－(나)－(다)
② (나)－(가)－(다)
③ (나)－(다)－(가)
④ (가)－(다)－(나)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각 문단의 지시 표현과 내용의 역할을 근거로 글의 전개 순서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나) → (가) → (다)
1. (나): 통증이 신체의 이상을 뇌에 알리는 신호임을 제시한다.
2. (가): 여러 통각이 동시에 들어오면 뇌가 더 강한 통증에 주의를 집중한다는 작동 원리를 설명한다.
3. (다): 앞에서 설명한 '통증 인지'를 이용하여 주사 전에 엉덩이를 때리는 실생활 사례를 제시한다.
왜 이 순서인가: (가)의 '여러 통각'은 (나)에서 통증의 전달과 인지 과정을 먼저 소개한 뒤에 자연스럽게 이해되며, (다)의 '이러한 통증 인지'는 앞선 설명 전체를 가리키므로 마지막에 놓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가)－(나)－(다): (가)는 여러 통각이 동시에 수용되는 경우를 곧바로 다루므로 통증의 기본 성격과 전달 과정을 설명한 (나)가 먼저 와야 한다. 틀린 부분은 '(가)－(나)'이며, 올바르게는 '(나)－(가)－(다)'이다.
② O — (나)－(가)－(다): 통증의 개념과 전달 과정을 소개한 뒤, 여러 통증 중 강한 통증에 집중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그 원리를 이용한 실생활 사례로 마무리하므로 자연스럽다.
③ X — (나)－(다)－(가): (다)의 '이러한 통증 인지'와 엉덩이를 때리는 사례는 뇌가 더 강한 통증에 먼저 주의를 기울인다는 (가)의 설명을 전제로 한다. 틀린 부분은 '(다)－(가)'이며, 올바르게는 '(가)－(다)'이므로 전체 순서는 '(나)－(가)－(다)'이다.
④ X — (가)－(다)－(나): 통증이 이상을 알리는 신호라는 기본 설명인 (나)를 마지막에 두면, 구체적인 작동 원리와 적용 사례를 먼저 말한 뒤 개념을 뒤늦게 소개하게 된다. 틀린 부분은 (나)를 마지막에 둔 것이며, 올바르게는 (나)를 처음에 두어 '(나)－(가)－(다)'로 배열한다.

오답 포인트

(다)의 주사 사례만 보고 독립적인 예시 문단으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통증 인지'라는 지시 표현은 앞선 원리 설명을 요구하며, 구체적으로는 (가)의 '더 강한 통증에 뇌가 집중한다'는 내용을 이어받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단 배열 문제에서는 먼저 개념을 소개하는 문단을 찾고, '이러한'과 같은 지시 표현이 가리키는 앞 문단을 연결한 뒤, 원리 설명 다음에 사례가 오는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통증의 신호 제시 → 강한 통증 우선 인지 → 실생활 적용의 흐름이다.

NoteBase

문 13. 다음 글에 사용된 표현 기법이 아닌 것은?

당신 같으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나의 선택은 마을의 불빛들이다. 불빛들은 갓 핀 달리아 꽃송이이다. 세 칸 집 안에 사는 사람들의, 꿈과 노동과 상처와 고통의 시간들의 은유이기도 하다. 아름다움보다는 쓸쓸함이, 기쁨보다는 아쉬움의 시간들이 훨씬 많았을 텐데도 그들은 말없이 불을 켜고 지상의 시간들을 지킨다. 어떤 불빛들은 밤을 새우기도 한다.

① 문답법
② 점층법
③ 은유법
④ 의인법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글에 실제로 드러난 표현을 근거로 문답법·점층법·은유법·의인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문답법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답하는 방식이고, 점층법은 의미나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이다. 은유법은 연결어 없이 한 대상을 다른 대상과 동일시하는 방식이며,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대상에 사람의 행동이나 속성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당신 같으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묻고 곧바로 '나의 선택은 마을의 불빛들이다'라고 답하므로 문답법이 사용되었다.
② X — 틀린 표현은 '점층법'이다. '꿈과 노동과 상처와 고통'은 여러 삶의 요소를 나열한 것이며, 의미나 강도를 일정한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점층 구조는 아니다. 올바르게는 이 글에 점층법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야 한다.
③ O — '불빛들은 갓 핀 달리아 꽃송이이다'는 불빛을 달리아 꽃송이와 연결어 없이 동일시하므로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④ O — '어떤 불빛들은 밤을 새우기도 한다'는 불빛에 사람의 행위인 '밤을 새우다'를 부여하므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오답 포인트

'꿈과 노동과 상처와 고통'이 뒤로 갈수록 무거운 느낌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점층법이라고 판단하기 쉽다. 점층법으로 보려면 단순한 나열을 넘어 의미나 강도가 단계적으로 확대·고조되는 배열이 분명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질문 뒤에 답이 이어지면 문답법, A를 B라고 직접 나타내면 은유법, 사물이 사람처럼 행동하면 의인법으로 판단한다. 점층법은 표현의 의미나 강도가 일정한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커지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묻고 답하면 문답, A는 B이면 은유, 사물이 사람처럼 행동하면 의인, 단계적으로 강해지면 점층이다.

NoteBase

문 14. 밑줄 친 ㉠에 들어갈 고사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오랜 세월 동안 겪어 온 생활 경험과 생활 방식의 총체로서의 문화적 전통 속에 있다. 그리고 그 문화적 전통은 '우리'라는 동질성을 부여해 주고,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문화적 정체성은 다른 문화와 구별되는 '우리'라는 울타리를 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일상 속에 융해되어 흡수된 외래문화도 포함한다. 즉, 문화적 정체성은 다른 문화와 구별되는 독자성과 다른 문화를 통하여 우리 것의 넓이와 깊이를 풍부하게 하는 상호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른 문화와 사람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다른 문화 및 사람과의 교류는 우리 문화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며 다른 문화의 수용을 통하여 우리 문화가 발전할 수 있음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_____과(와) 창조적 수용의 자세를 지녀야 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와 화목을 추구하면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전자의 자세이며, 다문화 속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은 후자의 자세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문화와의 공존과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같은 공동체에 속한 너와 나 모두의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① 法古創新
② 物我一體
③ 滄桑世界
④ 和而不同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태도에 알맞은 고사 성어를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화이부동(和而不同)은 남과 조화를 이루되 무조건 같아지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화목을 추구한다는 문맥과 맞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법고창신(法古創新)은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이다. 전통이나 외래문화를 바탕으로 새 문화를 만들어 내는 '창조적 수용'과는 통하지만, 빈칸 뒤에서 설명한 '차이를 인정하면서 화목을 추구하는 자세'를 직접 나타내지는 않는다. ㉠에는 법고창신이 아니라 화이부동이 들어가야 한다.

② X
물아일체(物我一體)는 외물과 자아가 하나가 된 경지를 뜻한다.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태도와는 다른 개념이다. ㉠에는 물아일체가 아니라 화이부동이 들어가야 한다.

③ X
창상세계(滄桑世界)는 푸른 바다가 뽕나무밭으로 변할 만큼 세상이 크게 변한다는 뜻이다. 변화가 심한 세상을 가리킬 뿐, 다양성을 인정하는 화목의 태도를 뜻하지 않는다. ㉠에는 창상세계가 아니라 화이부동이 들어가야 한다.

④ O
화이부동(和而不同)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도 각자의 차이를 없애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문화와 화목을 추구하면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바로 뒤의 설명과 정확히 대응한다.

오답 포인트

① 법고창신은 지문의 '창조적 수용'과 연결되므로 빈칸의 답처럼 보이기 쉽다. 그러나 빈칸과 '창조적 수용'은 서로 다른 두 자세로 병렬되어 있고, 빈칸의 뜻은 뒤 문장의 '화목'과 '차이 인정'에서 찾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 뒤에 이어지는 풀이 문장에서 핵심어를 찾는다. '조화·화목'과 '다름·차이 인정'이 함께 제시되면 화이부동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화이부동은 '화합하되 같아지지는 않음', 법고창신은 '옛것을 본받아 새것을 만듦'이다.

NoteBase

문 15.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가 출판한 백과사전과 집단 지성을 활용한 백과사전의 장단점을 비교한 다음 표의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존의 지식 생산 메커니즘은 특정 지식 집단에 집중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과거 지식의 총아라 일컬어졌던 백과사전의 경우 특정 학문 분야의 권위자만 서술과 편집의 권한을 가지고 백과사전을 출판할 수 있었다. 이러한 메커니즘에서는 전문가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는 지식 생산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설령 지식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생산한 지식은 저평가되기 일쑤였다. 과거에는 지성이란 특정 사람에게만 주어진 능력으로 간주되었다. 지성의 ㉡역할은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은 축적된 지식을 지닌 지성인, 곧 전문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겨진 것이다.

스탱어스는 지성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지식 창조이며, 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소위 전문가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반인의 지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근대적 관점에서 제기한 이로는 매카이가 있다. 매카이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대중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며, 그렇기 때문에 대중의 판단은 무용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 다르게 현대 사회에서는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이 제공한 지식을 검색하여 읽을 수 있고, 자신이 가진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글을 쓸 수 있으며, 잘못된 정보를 고치는 것 또한 자유롭게 되었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교육 수준의 상승과 정보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전문가로 공인받지 않은 일반인도 자신들이 생활에서 체험한 지식을 서로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식 생산에 기여하는 것을 집단 지성이라 부른다.

집단 지성은 정보 사회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 핵심 개념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는 개별 누리꾼이 서로 힘을 모아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포착되고 있는데, 이렇게 모인 힘을 표현하는 개념으로서 집단 지성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략)

NoteBase

	전문가가 출판한 백과사전	집단 지성을 활용한 백과사전
장점	· (가) 전문가의 서술과 편집을 거쳤기에 믿을 만하다. · 컴퓨터가 없는 환경에서도 언제든지 볼 수 있다.	· 누구나 지식 생산에 기여할 수 있다. · (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빠르고 쉽게 검색할 수 있다.
단점	· (다) 전문가가 지식 생산 및 창조의 기회를 독점한다. · 지식의 내용이 변해 수정·추가해야 할 때, 백과사전에 반영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여지가 있다. · (라)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개별 누리꾼이 늘어나고 있다.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지문에 직접 제시된 내용과 표의 비교 항목이 일치하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먼저 전문가 중심의 기존 지식 생산 방식과 누구나 참여하는 집단 지성의 차이를 구분한다. 다음으로 표의 밑줄 친 (가)~(라)가 지문에 직접 제시되었거나 지문에서 타당하게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인지 확인한다.

핵심 근거

지문은 과거의 백과사전이 특정 분야의 권위자에게 서술과 편집 권한을 부여했다고 설명한다. 반면 집단 지성은 일반인도 인터넷에서 지식을 검색·공유·수정하며 지식 생산에 기여하는 방식이다. 또한 개별 누리꾼이 힘을 모아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상이 뚜렷하다고 했을 뿐, 그러한 누리꾼의 수가 늘고 있다고 하지는 않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가) O
특정 학문 분야의 권위자가 서술과 편집을 맡고, 축적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지식을 생산한다는 설명에 비추어 신뢰성을 장점으로 제시한 것은 적절하다.

② (나) O
지문은 현대 사회에서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이 제공한 지식을 검색하여 읽을 수 있다고 직접 설명하므로 적절하다.

③ (다) O
기존 지식 생산 방식에서는 특정 권위자만 서술과 편집의 권한을 가지고 일반인에게는 지식 생산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전문가가 지식 생산과 창조의 기회를 독점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④ (라) X
틀린 표현은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개별 누리꾼이 늘어나고 있다'이다. 지문은 개별 누리꾼이 서로 힘을 모아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포착된다고 했을 뿐, 개별 누리꾼의 수가 증가한다고 설명하지 않았다. 올바르게는 '개별 누리꾼이 서로 힘을 모아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사회적 영향력의 발휘가 뚜렷해진다'는 지문의 내용을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난다'로 바꾸었다. 현상의 강화와 참여자 수의 증가는 서로 다른 판단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교표의 표현을 지문과 대조할 때는 주체, 행위, 정도, 수량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특히 '현상이 뚜렷하다'가 '사람의 수가 증가한다'로 바뀌는 것처럼 서술 대상이 달라지면 지문에 없는 추론이다.

암기 포인트

현상의 증가와 사람 수의 증가는 같지 않다.

NoteBase

문 16. ㉠~㉣의 밑줄 친 단어를 한자로 바르게 표기한 것은?

기존의 지식 생산 메커니즘은 특정 지식 집단에 집중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과거 지식의 총아라 일컬어졌던 백과사전의 경우 특정 학문 분야의 권위자만 서술과 편집의 권한을 가지고 백과사전을 출판할 수 있었다. 이러한 메커니즘에서는 전문가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는 지식 생산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설령 지식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생산한 지식은 저평가되기 일쑤였다. 과거에는 지성이란 특정 사람에게만 주어진 능력으로 간주되었다. 지성의 ㉡역할은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은 축적된 지식을 지닌 지성인, 곧 전문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겨진 것이다.

스탠어스는 지성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지식 창조이며, 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소위 전문가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반인의 지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근대적 관점에서 제기한 이로는 매카이가 있다. 매카이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대중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며, 그렇기 때문에 대중의 판단은 무용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 다르게 현대 사회에서는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이 제공한 지식을 검색하여 읽을 수 있고, 자신이 가진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글을 쓸 수 있으며, 잘못된 정보를 고치는 것 또한 자유롭게 되었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교육 수준의 상승과 정보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전문가로 공인받지 않은 일반인도 자신들이 생활에서 체험한 지식을 서로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식 생산에 기여하는 것을 집단 지성이라 부른다.

집단 지성은 정보 사회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 핵심 개념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는 개별 누리꾼이 서로 힘을 모아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포착되고 있는데, 이렇게 모인 힘을 표현하는 개념으로서 집단 지성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략)

① ㉠ 機會
② ㉡ 役活
③ ㉢ 會議
④ ㉣ 公有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문맥에 나타난 한자어의 뜻을 파악하고, 같은 음을 가진 다른 한자와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NoteBase

핵심 개념

한자어는 발음만으로 표기를 정할 수 없으며 문맥상의 뜻에 맞는 한자를 선택해야 한다. 기회는 '때나 계기'를 뜻하는 機會, 역할은 '맡은 구실'을 뜻하는 役割, 회의적은 '의심을 품는 태도'를 뜻하는 懷疑的, 공유는 '함께 소유하거나 나눔'을 뜻하는 共有로 적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어떤 일을 하기에 알맞은 때나 경우'를 뜻하는 '기회'는 機會로 쓰므로 바른 표기이다.
② X — '역할'을 役活로 쓴 부분이 틀렸다. '맡은 구실이나 기능'을 뜻하는 '역할'은 役割로 쓴다.
③ X — '회의'를 會議로 쓴 부분이 틀렸다. 會議는 '여럿이 모여 의논함'을 뜻하며, 문맥의 '의심을 품는 태도'라는 뜻의 '회의적'은 懷疑的으로 쓴다.
④ X — '공유'를 公有로 쓴 부분이 틀렸다. 公有는 '국가나 공공 단체의 소유'를 뜻하고, 문맥처럼 지식을 함께 나눈다는 뜻의 '공유'는 共有로 쓴다.

오답 포인트

발음이 같은 '회의'의 會議와 懷疑, '공유'의 公有와 共有를 문맥 없이 음만 보고 고르면 틀리기 쉽다. 또한 '역할'의 둘째 음절 '할'은 活이 아니라 割임을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밑줄 친 단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문맥상의 뜻을 확정한 뒤, 각 한자의 훈이 그 뜻과 맞는지 대조한다. '의논하는 회의'는 會議, '의심하는 회의'는 懷疑이며, '공공의 소유'는 公有, '함께 나눔'은 共有이다.

암기 포인트

기회는 機會, 역할은 役割, 의심은 懷疑, 함께 나눔은 共有이다.

NoteBase

문 17.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을 햇볕에 공기에
익는 벼에
눈부신 것 천지인데,
그런데,
아, 들판이 적막하다 —
메뚜기가 없다!

오 이 불길한 고요 —
생명의 황금 고리가 끊어졌느니…….

① 화자의 인식이 변화하는 지점이 있다.

② 공간의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③ 1~4행이 'ㅔ'로 끝나면서 각운을 형성하고 있다.

④ 비유적인 시구를 사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시적 상황의 전개 방식, 각운, 비유가 작품의 주제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시상의 전개는 화자의 생각과 정서가 이어지거나 바뀌는 방식이다. 이 작품은 같은 들판을 바라보면서 풍요롭고 눈부신 가을 풍경에서 메뚜기가 사라진 불길한 고요로 인식이 전환된다.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인식과 정서의 변화가 중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처음에는 가을 햇볕과 익는 벼를 보며 천지가 눈부시다고 인식하지만, '그런데'를 기점으로 들판의 적막과 메뚜기의 부재를 깨닫는다. 화자의 인식이 풍요로운 풍경에서 생태계 단절에 대한 불안으로 바뀐다.
② X. 작품의 배경은 계속 들판이며 화자가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공간의 변화에 따라'이다. 올바르게는 '화자의 인식과 정서의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이다.
③ O. 1~4행은 각각 '공기에', '벼에', '천지인데', '그런데'로 끝나며 끝소리 'ㅔ'가 반복되어 각운을 형성한다.
④ O. '생명의 황금 고리'는 생명체들이 이어진 생태적 관계를 비유한 표현이다. 그 고리가 끊어졌다는 시구를 통해 메뚜기의 부재가 뜻하는 생태계 파괴와 생명 단절의 위기라는 주제를 드러낸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그런데’를 전환 표지로 보고 곧바로 공간이 바뀌었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전환 표지는 시상의 방향을 바꿀 뿐이며, 이 작품에서 달라지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들판을 바라보는 화자의 인식과 정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간 변화 여부는 장소를 나타내는 시어가 실제로 달라지는지로 판단한다. 접속어 뒤에서 대상에 대한 평가나 정서만 달라지면 공간 이동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에 해당한다.

암기 포인트

같은 들판, 다른 인식: 눈부신 풍요에서 불길한 생명 단절로 전환된다.

NoteBase

문 18. 다음 글의 고쳐 쓸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즈음 청소년들의 외적인 체격은 과거에 비해 월등히 좋아졌으나, 그에 비해 영양 상태는 균형을 갖추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식습관은 청소년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더 심화한다. 어른들 못지않게 바쁜 요즘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이 필수적이다.
우선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습관을 지니도록 한다. 세 끼를 제때 챙겨 먹되,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한다. ㉡한 전문 조사 기관의 자료를 보면 직장인들의 24.1퍼센트는 아예 아침을 먹지 않는다고 한다. 아침 식사를 하면 집중력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공복감을 줄여 점심에 폭식을 하지 않게 되고 간식도 적게 먹게 된다.
또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도록 한다. 패스트푸드 등은 고열량, 저영양 식품으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비만을 유발한다. 따라서 ㉢편식 않는 습관과 고루 섭취하는 균형 있는 식사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다. 심폐 지구력과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주 3회 이상 꾸준히 하도록 한다. 꾸준한 운동은 여드름 예방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피부가 고와지는 데 도움을 준다.
평소 생활 속에서 올바른 식습관을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즐겁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식사해야 한다. 이러한 올바른 식습관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고 삶의 행복과 만족도를 높여 준다.

① ㉠ '이러한 식습관'이 지시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② ㉡ 청소년의 식습관에 관한 자료로서 직장인의 조사 결과는 맞지 않다.

③ ㉢ '편식 않는 습관'이 어색하므로 '편식을 하지 않는 습관'으로 고친다.

④ ㉣ 문단 전체가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하거나 글의 주제에 맞게 고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글을 고쳐 쓸 때 지시어의 명확성, 자료의 적절성, 문장 성분의 호응, 문단의 통일성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고쳐쓰기는 글의 내용과 표현을 검토하여 의미가 분명하고 문법에 맞으며 주제에 통일되도록 다듬는 과정이다. 지시어는 앞에 분명한 지시 대상이 있어야 하고, 근거 자료는 글의 대상과 일치해야 하며, 연결된 문장 성분은 서술어와 자연스럽게 호응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 앞에는 청소년의 구체적인 식습관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식습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다. 청소년의 불규칙한 식사나 영양이 불균형한 식사처럼 지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O — 글의 대상은 청소년인데 ㉡은 직장인의 아침 결식 조사 결과를 근거로 사용한다. 청소년의 식습관을 뒷받침하려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로 바꾸어야 한다.
③ X — ㉢의 핵심 문제를 '편식 않는 습관'이라는 표현 하나로만 본 것은 적절하지 않다. '습관과 식사를 해야 한다'에서 '습관'은 서술어 '해야 한다'와 자연스럽게 호응하지 않으므로, '편식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고, 음식을 고루 섭취하여 균형 있는 식사를 해야 한다'처럼 문장 성분의 호응까지 고쳐야 한다.
④ O — ㉣은 올바른 식습관이 주제인 글에서 운동 방법과 여드름 예방 효과를 다루어 문단의 통일성을 해친다. 문단을 삭제하거나 올바른 식습관에 관한 내용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③은 '편식 않는'을 '편식을 하지 않는'으로 바꾸는 데만 주목하게 만든다. 그러나 고쳐쓰기에서는 한 표현의 어색함뿐 아니라 '습관과 식사를 해야 한다'와 같은 문장 성분과 서술어의 호응까지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쳐쓰기 문항에서는 지시 대상이 분명한지, 자료가 글의 대상과 맞는지, 주어·목적어 등이 서술어와 호응하는지, 각 문단이 글의 주제에 통일되는지를 차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지시어는 명확하게, 자료는 대상에 맞게, 문장 성분은 서술어와 호응하게, 문단은 주제에 통일되게 다듬는다.

NoteBase

문 19. 다음 작품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해에도 아주머니는 마찬가지였다. 그해에도 그녀는 5월로 접어들며 몇 번씩이나 철쭉 꿈을 꾸었고 그만큼 혼자서 개화를 기다려 왔다 하였다. 그리고 다시 집 앞을 찾아와 담 위로 흰 꽃이 흐드러진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는 것이었다. (중략) 아주머니는 그쯤에서 대강 이야기를 끝내고 우리들에 대한 치하의 말과 함께 그만 자리를 일어섰다.
우리는 이제 그 아주머니를 보고도 서로간에 잠시 할 말을 잃고 있었다. 공연히 애틋하고 무거운 기분에, 가져선 안 되는 것을 빼앗아 가진 사람처럼 아주머니에게 자꾸 송구스러워지고 있었다. (중략)
하지만 그건 물론 실현성이 없는 소리였다. 아주머니네는 이제 나무를 옮겨가 심을 집이 없었다. 그런 일을 치를 만한 힘도 없었다. 아니, 그보다 아주머니 자신이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있을 일이었다. 아주머니는 차마 그녀의 본심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주머니가 꿈속에서 본 것은 다만 흰 철쭉꽃만이 아니었다. 흰 철쭉꽃은 그녀의 고향의 모습이자 친정어머니의 모습이기도 하였다. 아주머니는 철쭉으로 고향을 만나고 그 어머니를 대신 만나 온 것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그리운 고향과 어머니의 소식을 기다려 온 것이었다. 친정어머니가 행여 이남으로 넘어와 어디에 살아 있다면 그 어머니는 철쭉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었다. (중략)
나무는 언제까지나 거기 남아 있어야 하였다. 거기서 끝끝내 기다리고 있어야 하였다. 아내나 나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 나무를 옮겨 가도 좋다는 아내의 제안은 그러니까 그저 자기 진심에 겨운 위로의 말일 뿐이었다. (하략)

① 인물들 사이의 갈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② 철쭉꽃이 의미하는 바가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다.
③ 이야기가 전개되는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④ 이 작품의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와 내용이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작품에 실제로 드러난 인물 관계, 소재의 의미, 시대적 배경, 서술 시점을 구체적인 표현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인물 간 갈등은 인물들의 욕구나 입장이 맞서 충돌하는 관계이다. 이 글에서는 아주머니와 '우리'가 대립하지 않으며, 아주머니의 사연을 알게 된 '우리'가 애틋함과 미안함을 느낀다. 또한 흰 철쭉꽃의 상징적 의미는 고향과 친정어머니라고 서술자가 직접 밝혀 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인물들 사이의 입장이나 욕구가 충돌하는 갈등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갈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는 표현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아주머니의 사연을 이해한 '우리'의 애틋함·미안함과 위로의 마음이 드러난다고 해야 한다.
② O — '흰 철쭉꽃은 그녀의 고향의 모습이자 친정어머니의 모습'이라고 하여 철쭉꽃의 의미를 직접 제시한다.
③ O — 친정어머니가 '이남으로 넘어와' 살아 있을 가능성을 떠올리고 고향과 어머니의 소식을 기다리는 모습에서 분단으로 고향과 가족을 잃은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④ O — '우리', '아내나 나는'과 같은 1인칭 표현이 시점의 표지로 나타나며, '나'가 아주머니의 사연과 그에 대한 자신들의 반응을 서술하므로 1인칭 서술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인물들이 무겁고 송구스러운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을 인물 간 갈등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 감정은 아주머니와의 대립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아주머니의 상실과 기다림을 이해하면서 생긴 연민과 미안함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작품 이해 선지는 근거 표현을 본문에서 대응시켜 판단한다. 갈등은 인물 간 대립이 실제로 있는지, 상징은 의미가 직접 제시되는지, 시대 배경은 역사적 단서가 있는지, 시점은 '나'·'우리' 같은 서술 주체의 표지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무거운 감정이 곧 갈등은 아니다. 갈등에는 인물들의 대립이 필요하며, 이 글의 핵심 정서는 대립이 아니라 공감과 미안함이다.

NoteBase

문 20. 다음 글의 뒤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세상이 빨라지면, 사람도 덩달아 빨라지고 사람들이 즐기는 것들도 빨라진다. 옛날에 비해 사람들의 걸음걸이도 빨라졌고, 말도 빨라졌다. 음악이나 영화의 속도도 옛날보다 훨씬 빨라졌다. 요즘 사람들이 듣기에 시조창이나 수제천*과 같은 음악은 너무나 답답하다. 베토벤의 교향곡을 연주하는 속도 역시 베토벤 시대보다 요즘 더 빨라졌다고 한다. (중략)
그러나 빠르고 바쁜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수제천: 신라 때에 만들어진 아악의 하나

① 한 권의 책을 천천히 읽으면서 책 읽기의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는 일
② 시간에 얽매이지 않은 채 여행지의 사람들과 풍습을 충분히 경험하는 일
③ 오래된 것의 아름다움을 살리기 위해 속성(速成)으로 관련 기술을 배우는 일
④ 수년간 완두콩을 심고 그것이 자라는 것을 관찰하여 형질이 이어짐을 살펴보는 일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글의 중심 화제와 마지막 문장의 전환 관계를 바탕으로, 뒤에 이어질 사례가 '빠르고 바쁜 삶 때문에 잃어버린 가치'를 보여 주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글은 세상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사람의 생활과 문화 향유 방식도 빨라졌고, 그 결과 많은 것을 잃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뒤에는 속도와 효율만 좇는 삶을 비판하거나, 충분한 시간을 들여 과정과 가치를 누리는 삶을 긍정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선지별 해설

① O — 한 권의 책을 천천히 읽으며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는 일은 속도를 늦추어 과정의 가치를 회복하는 사례이므로 이어질 내용으로 적절하다.
② O —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행지의 사람과 풍습을 충분히 경험하는 일은 빠른 삶에서 벗어나 삶의 깊이를 되찾는 사례이므로 적절하다.
③ X — '속성(速成)으로 관련 기술을 배우는 일'은 짧은 시간에 빨리 성취하려는 태도이므로, 글이 비판하는 속도 중심의 삶에 해당한다. 오래된 것의 아름다움을 살리려면 관련 기술을 오랜 시간 천천히 익히는 일이라고 고쳐야 글의 흐름에 맞는다.
④ O — 수년간 완두콩을 심고 생장을 관찰하는 일은 오랜 시간과 인내를 들여 의미 있는 결과를 얻는 사례이므로 적절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의 '오래된 것의 아름다움을 살리기 위해'라는 목적만 보면 글의 취지와 맞아 보인다. 그러나 판단을 가르는 표현은 '속성으로'이며, 이는 빠름을 비판하고 느림의 가치를 되찾으려는 글의 흐름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마지막 문장에서 '그러나' 뒤에 제시된 핵심 주장에 주목한다. 이어질 사례가 충분한 시간, 과정의 향유, 인내라는 방향이면 적절하고, 속도와 효율을 다시 추구하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빠름이 잃게 한 것의 회복은 '천천히·충분히·오랫동안'이며, '속성'은 그 반대이다.

NoteBase